

“마약, 출구 없는 미로...호기심도 안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 송정역서 캠페인 오·남용 위험성 홍보...범죄 근절 위한 활동 참여 독려 등도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호기심에 손을 댔다간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은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광주 송정역 광장 일대에서 ‘청소년 마약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지검의 후원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 지부의 협찬으로 마련됐다.

광주지역협의회에선 최갑렬 회장을 비롯해 마찬호 다문화분과 위원장, 구제길 청소년분과 위원장, 최진숙 여성분과 위원장, 천창석 의료분과 위원장 등이, 광주지검에선 형사부 허정훈 검사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에선 감미량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에 함께한 90여명의 참석자들

은 오후 5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송정역을 찾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또 ‘마약 없는 건강한 광주·전남 우리 함께 만들어요’, ‘마약 없는 밝은 사

회 함께 웃는 대한민국’, ‘출구 없는 미로 마약’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관련 범죄 근절에 함께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광장 한 편에선 헤로인, 케타민, 아바, 코카인, 필로폰, 대마초 등 주로 오·남용되는 마약의 위험성을 모형 전시를 통해 안내하기도 했다.

허정훈 검사는 “처벌 기관으로서 예방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는데, 그 역할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

회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약의 위험성을 계속 알리다 보면 관련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갑렬 협의회장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근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청소년 마약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애리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6:06 해질 18:58
🌙 달뜨기 04:58 달짐 18:46

인cheon	24/27	Seoul	23/28	Chuncheon	21/26	Gangneung	23/28
Daejeon	22/30	Jeonju	23/30	Daegu	24/32	Dokdo	25/28
Mokpo	23/29	Gwangju	22/30	Busan	25/31	Jeju	24/30
Hokkaido	23/30	Jeju	25/31	Jeju	24/30	Jeju	24/30

광주	구름조금	22/30
목포	흐려져비	23/29
여수	구름조금	24/30
나주	구름조금	21/30
완도	구름조금	22/33
구례	구름조금	22/32
강진	구름조금	21/32
해남	흐려져비	21/32
장성	흐려져비	21/30
보성	구름조금	20/31
순천	구름조금	23/32
영광	흐려져비	22/29
진도	흐려져비	22/30
흑산도	흐려져비	23/30
고흥	구름조금	21/31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 빨래 70 🚗 세차 80 🏃 운동 70
 자외선 차단제 필수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수분 섭취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0.5-1.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2:05	07:19
	14:00	19:19
여수	08:48	02:46
	21:12	14:46
녹동	09:26	04:00
	21:54	15:46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9월 3일(화)	☁ (23/31)	☁ (22/31)	☁ (21/28)	☁ (23/29)	☁ (25/31)
4일(수)	☀ (22/32)	☁ (22/31)	☀ (20/29)	☀ (21/32)	☁ (25/31)
5일(목)	☀ (23/32)	☁ (24/32)	☁ (22/30)	☀ (22/32)	☁ (25/30)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이사장 학사 개입” 조선대 부총장·처장단 보직 사퇴

주요 보직자 10명 내부 계서판에 임장 밝혀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처장단이 법인 이사장의 과도한 학사 개입을 비판하며 보직을 사퇴했다.

1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학내 내부 계서판을 통해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등 10명의 주요 보직자들이 사퇴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대학분부는 8월 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보직 및 내년도 글로벌

대학30 사업 준비를 위한 직원 인사를 법인에 제청했지만 법인 측은 학내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복직 및 신규임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를 반려했다”며 “인사 내용은 학교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은 인사 관리 및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준비

하는 학사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조선대 학사업무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부총장과 처장단은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직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는 범조선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김이수 이사장의 일방적인 대학 운영을 주장하며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이

번 9월 인사는 비정기 인사이기도 해서 11월 승진 인사 시 함께 하려고 반려했던 것”이라며 “학생처장 유임에 대해 법인과 대학 주요 보직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같은 문제로 부총장 등이 사퇴하는 상황을 적잖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최근 구성된 비상대책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총학생회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서구 ‘차량 검사·과태료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시행

광주 서구는 1일 “이달부터 자동차 검사와 과태료 납부 안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기존 등기 우편으로 전달했던 자동차 검사 사전·경과, 검사 지

연 과태료 부과 안내를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기존 종이 우편물은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혜택 기회를 놓치거나 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성학기자

광주·전남 검정고시 합격자 1천525명

2024년도 제2회...최고령 77세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총 1천227명이 응시해 이중 81.5%에 해당하는 1천명이 최종 합격했다.

학력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7세(여) ▲중졸 75세(여) ▲고졸 74세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시교육청 고시관리실(별관 1층)에서 합격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응시자 편의를 위해 우편 교부도 함께 진행한다.

우편 교부 신청 방법은 시교육청 누

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는 총 729명이 응시해 이중 72%인 525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4세 ▲중졸 70세 ▲고졸 73세(여)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오는 9일까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 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는 발표일부터 나이대 대국민서비스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김대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